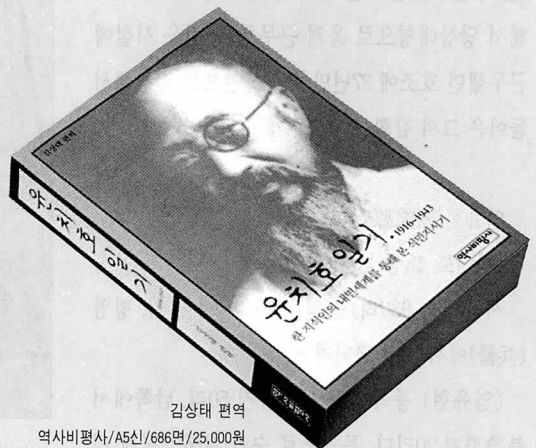


# 한 획절 지식인의 갈등과 고민 담긴 일기

《윤치호 일기 1916~1943》

친일파의 대부라는 오명에 가려 방치돼왔던 윤치호의 내면세계를 엿볼 수 있는 《윤치호 일기》가 출간됐다. 윤치호는 60년 동안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영어로 일기를 썼다. 이 일기에서 냉철한 국제정치적 감각과 안목을 지녔던 지식인이 어떻게 친일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는지 추적할 수 있다. 또한 공식문헌에서 삭제된 당대의 풍속과 생활상도 엿볼 수 있다.



김상태 편역  
역사비평사/A5신/686면/25,000원

역사비평사에서 《윤치호 일기 1916~1943》(김상태 편역)을 펴냈다. 이 책은 그동안 '친일파의 기록'으로 분류돼 역사문헌에서 의도적으로 방치돼온 귀중한 근대사 사료를 '구출'해 연구자료에 '입적' 시켰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또한 최근 역사연구의 한 경향으로 주목받고 있는 생활사·풍속사 연구의 지평을 열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가치가 있다.

'한 지식인의 내면세계를 통해 본 식민지시기'란 부제가 말해주듯, 이 책에는 한 지식인의 내밀한 속내와 함께 그의 국내의 정세인식, 일제의 조선 통치정책에 대한 판단, 독립운동에 대한 생각, 조선의 역사·문화·민족성에 대한 인식 등이 여과 없이 기록돼 있다. 공적인 목적이나 정치적 의도가 담긴 기록이 아니라 개인의 자기 반성과 점검을 목적으로 한 일기란 점에서 이 책의 사료적 가치는 더 높아진다.

### 회색 지식인에서 자발적 친일파로 변모

윤치호는 누구인가. 편역자에 따르면, 좌옹 윤치호(1865~1945)는 1880년대와 1890년대 초반에 일본·중국·미국에서 유학한 한국 최초의 근대적 지식인이었다. 또한 독립협회와 대한자강회의 회장을 지낸 개화·자강운동의 핵심인물이었으며, 한국 최초의 미국 남감리회 신자이자 YMCA운동의 지도자로서 일제시기 기독교계의 원로였다.

3·1운동 때는 총독부 기관지인 《경성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독립운동 무용론'을 피력해 온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았다. 중일전쟁 발발 후에는 기독교계의 친일을 주도하고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과 조선임전보국단 등의 고위 간부를 지내며 '친일파의 대부'를 자임했다. 그의 극절 많은 이력은 격동기를 산 굴절된 지식인의 한 전형이기도 하다.

윤치호는 1883년부터 1943년까지 60년 동안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일기를 썼다. 그것도 거의 대부분 영어로 기록했다. 그는 영어로 일기를 쓰는 이유를 "우리말로는 지금의 여러 가지 일을 다 세세히 쓰기 어렵고...영어를 배우기가 빠른 까닭"이라고 적어놨다. 이 책은 편의상 일제 시기 부분만 발췌해 번역했고, 3·1운동 전후, 만주사변 전후, 중일전쟁·태평양전쟁 전후로 나눠 구성했다.

일기에 담긴 윤치호의 내면세계를 따라가다 보면, '회색' 지식인에서 '자발적 친일파'로 변모해가는 한 지식인의 고민과 갈등을 엿볼 수 있다. 3·1운동을 전후한 시기와 1920년대에 윤치호는 일제의 통치정책과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파리강화회의에 대해 낭만적인 낙관론에 빠져 있던 민족진영에 비해 그는 국제정세가 약육강식의 논리에 지배될 것이라는 점을 정확히 예측했다.

국제관계에서 정글의 법칙이 관철될 것이라는 윤치호의 인식 밑바탕에는 인간은 천성적으로 악하다는 믿음이 깔려 있었다. 그는 국제정세에 비취볼 때 인격수양과 민족성 개조를 중심으로 한 비정치적 실력양성만이 조선인이 지향해

야 할 운동노선이라고 확신했다.

### 일제시대 풍속과 세태도 담겨 있어

중일전쟁 후 그가 능동적인 친일의 길로 나선 것은 백인 우월주의와 인종차별에 대한 반감에서 비롯했다. 중국·미국 유학시절 인종차별을 몸소 겪었던 그는 이들 전쟁을 백인종에 맞선 황인종의 투쟁으로 인식하고 황인종의 입장에서 일제의 손을 들어줬던 것이다. 사회주의에 대한 적개심과 조선인의 민족성에 대한 회의도 그의 친일을 거든 심리적 기제였다.

이 일기에는 공식문헌에서 배제된 뒷이야기를 듣는 재미도 쏠쏠하다. 특히 고종황제 독살설, 유길준의 을미사변 관련설, 1930년대 중반 최남선의 변질설, 신홍우의 흥업구락부사건 조작설 등 그가 직접 겪었던 사건들의 미묘한 정황이나 지인을 통해 얻은 각종 정보와 장면에 파다하게 퍼진 소문이 가득 담겨 있다.

또한 "날이 저문 후에 조선인이 거리에 나가 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자칫하면 아무런 사전경고도 받지 못한 채 경찰, 헌병, 일본인 날품팔이들에게 칼에 찔리고 곤봉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1919년 3월 31일)는 대목에서 당시의 살벌했던 시대상을 엿볼 수 있다. 일기 틈틈이 엿보이는 거리의 풍경이나 세태 등을 통해 일제시대 풍속사를 재구성해볼 수도 있다. - 박천홍 기자